**왕상1302 Note**

**Cross check 왕하2315-18**

왕하2315. 더 나아가, 벧엘에 있던 제단과, 이스라엘로 죄짓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높은 곳, 그 제단과 높은 곳의 양쪽을 그가 무너뜨리고, 높은 곳을 불태우고, 그것을 작게 가루로 짓밟고, 작은 숲(아쉐라:행복한 베니게의 한 여신 아세라,아세라 우상,목상,작은 숲)을 불태우니라,

왕하2316. 그리고 요시야가 그 자신을 돌렸을 때에, 그가 산에서 거기에 있던 무덤들을 탐지해내니라(라아:보다,숙고하다,분별하다,주시하다,주의를 기울이다,올려다보다,주목하다,인지하다,주목해서 보다,정탐하다,노려보다,조망하다), 그리고 이들의 말들을 선언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였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서, 무덤들에서 뼈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그것을 더럽히니라[타메:의식적 또는 도덕적 의미에서 더러워지다,오염된,(스스로)더럽히다,(스스로)부패하다,부정하다,부정하게 되다,부정하게 하다,부정하다고 선언하다,전적으로],

왕하2317. 다음에 그가 말하니라, 내가 보는 저것은 무슨 표제(찌윤:기념비석,안내하는 기둥,표시,표제,표지판)냐? 이에 그 성(城)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니라, 그것은 유다로부터 와서, 당신께서 벧엘의 제단을 거슬러 행하셨던 이들의 것들을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이니이다,

왕하2318. 이에 그가 말하니라, 그를 내버려두라, 아무도 그의 뼈들을 이동시키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왔던 대언자의 뼈들과 함께, 그들이 그의 뼈들을 그대로 남겨두니라,